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G20 HLIP, COVID-19 글로벌 대응방안 제시



CONTENTS

01

포커스

- G20 HLIP, COVID-19 글로벌 대응방안 제시 1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Google Cloud, 의료기록을 FHIR 표준으로 매핑하는 솔루션 출시 4
- 미국 헬스케어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확대 4
- 영국 NHS Digital, 보건 DB 구축 시 데이터 보호에 대한 검토 실시 5
- 사우디아라비아 병원, Cerner와 협력관계를 통해 디지털 전환 추진 5
- 일본, 로보틱스·데이터×통신×IT 융합의 가속화 6
- 디지털 기술과 기기,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회복을 지원 6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Abbott사의 시장 진입으로 LAAC 시장의 경쟁 심화 전망 7
- 미국, COVID-19 글로벌 대응과 회복 프레임워크 발표 7
- 유럽 EC, Illumina의 Grail 인수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8
- 유럽 농촌지역,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건 서비스 공급이 중요 8
- 일본 화장품업체 Kao, 매출 부진 극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투자 9
- 중국, 외국에서 제조된 COVID-19 백신을 사용하여 추가접종 고려 9
- 캐나다·영국, COVID-19 백신과 변이 바이러스의 상관관계 연구 10
- 델타 변이 바이러스, 높은 전염력으로 급속도로 확산 10

- 재정 및 거버넌스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Bruegel, 글로벌 발전 센터, 미국 국립 의학 아카데미, 웰컴 트러스트 등 민간기구가 지원하는 조직
- G20 HLIP는 팬데믹대응독립패널(Independent Panel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IPPPR)과 글로벌대응모니터링위원회(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 GPMB) 등의 부속 기구를 운영

[2] 국제적 공조와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G20 HLIP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고, 민간부문과 힘을 합쳐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을 예방하고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기술한 4가지 측면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역량강화를 강조

- 글로벌 감시 및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에 발병 가능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빠르게 찾아내는 역량을 육성
- 각국 시스템 회복을 증대하여 글로벌 팬데믹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
- 의료적 조치와 다양한 공급역량 확대를 통해 팬데믹에 따른 대응 시간과 적절한 의료용품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필요
-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팬데믹 대응 시스템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과 활동 결과에 대한 투명한 책임이 부여되는 형태의 거버넌스를 마련

■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 팬데믹 예측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금인 향후 5년간 최소한 750억 달러, 매년 15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자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의 참여가 필요
- 이러한 투자 금액은 팬데믹의 예방과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신규 투자의 최소한의 규모이며, 투자금액에는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회복력과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
-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신규 투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보건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발전시키는 목표를 지원하는 현재의 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투자 규모에 추가적인 신규 투자를 의미

[3] 보건과 자금 지원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필요

■ 전염병의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버넌스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금지원

만으로는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보건 시스템 협력 기구가 필요

- 글로벌대응모니터링위원회(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에 따르면, 글로벌 차원의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매우 분산되어 있으며, 복잡할 뿐 아니라 책임 분야도 불분명하고,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자금 지원의 중요성을 간과
-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보건 안전과 재정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인 ‘글로벌보건위협위원회(Global Health Threats Board, GHTB)’ 설립이 필요

* 초기에는 글로벌보건위협기금(Global Health Threats Fund) 주도로 자금을 조성하고, 글로벌대응모니터링위원회(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를 과학 자문 패널로 개편

- GHTB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에서 설치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를 모델로 한 것으로, 이 기구의 신뢰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G20를 위시한 많은 국가들의 보건 및 재무장관과 주요 국가기구의 수장들이 참가하는 형태로 구성
- 이 위원회는 또 다른 팬데믹 확산에 대한 예방,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

■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공공재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금융 지원 시스템이 요구되며, 아래에서 제시되는 4가지 전략적 행동이 필요

- 세계 각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사전에 협의된 형태의 공평한 분배 비율로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자금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며, 새로운 재원 조달 및 자금 지원 방법이 포함된 이러한 자금 조성 방법은 WHO의 강화와 개혁을 통해 달성이 가능
- 이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자금 지원에는 세계은행과 다양한 다자간 개발기구, 국제 통화 기금과 같은 국제 금융 기관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국제 금융 기관들은 팬데믹 대응 재원 투자 확대와 함께,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사전에 합의된 기여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글로벌보건위협기금(Global Health Threats Fund)을 조성하여, 전염병 감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규모의 보조금을 공여하고,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신뢰에 기반한 자금을 조성하고,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원

* 글로벌보건위협기금(Global Health Threats Fund)을 설립하고, 매년 100억 달러 규모의 재원 조성

- 이러한 다자간 보건 시스템의 구축은 기존의 양자간 공적자금원조(ODA)와 민간 및 박애주의적 부문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G20 Italia 2021, 2021.07.09.]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Google Cloud, 의료기록을 FHIR 표준으로 매핑하는 솔루션 출시

■ 빅테크 기업들이 의료 기록의 공개와 공유를 촉진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상호운용성 솔루션에 뛰어드는 가운데, 미국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록 데이터를 FHIR 표준을 준수하는 데이터셋(dataset)으로 변환하는 솔루션을 출시

- 구글이 이번에 출시한 헬스케어 데이터 엔진 솔루션은 FHIR 표준을 준수하며, 환자의 장기간에 걸친 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에서 첨단 분석 기법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이 가능

*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은 의료정보 표준화 국제기구인 HL7에서 제정한 의료 데이터의 상호 교환과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API 표준을 의미

- 구글이 발표한 이 기술은 HL7 V.2 기반 전자건강기록(EHR)에 기록된 의료기록 및 환자 업데이트 정보의 90% 이상을 FHIR 표준으로 전환 가능
- 이에 따라 다양한 보건 의료 관련 기관들은 신속하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으며, 구글의 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석 도구인 BigQuery의 적용 가능

[Fierce Healthcare, 2021.07.22.; ZD Net, 2021.07.22.]

미국 헬스케어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확대

■ 데이터 분석 기법은 빅데이터와 인구 보건 데이터, 환자 진료 및 치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단, 맞춤형 치료 등의 영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 헬스케어 서비스는 인터넷과 연결된 다양한 헬스케어 기기와 IoT 센서 데이터가 상호 결합되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

-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 관리 역시 주목되고 있으며, 혈압이나 맥박, 체온 등의 바이탈 사인이나 평소의 생활 습관, 복용하는 약에 대한 개인 데이터의 머신러닝(ML) 기반 가상 의료관리(Virtual Care)도 확대
- 미국 메디케어및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18년에 환자들에게 환자원격모니터링(RPM)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진료 및 치료 행위를 규정한 의료행위(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PT) 코드를 도입

[MedTech Intelligence, 2021.07.15.; mHealth Intelligence, 2021.07.19.]

영국 NHS Digital, 보건 DB 구축 시 데이터 보호에 대한 검토 실시

■ 영국 정부는 '21년 초에 모든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 GP) 기록에 대하여 중앙 국민보건서비스(NHS)내에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실행이 지연

-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NHS 내에서 헬스연구원 또는 민간연구그룹, 기업에서 중앙 NHS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이 파악할 수 없는 목적과 상업적 이익을 위해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에 직면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4대 테크기업들은 영국 NHS와 협력하여 데이터 접근하는 것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상업적 이익 창출을 위해 사람들의 민감한 건강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
- 구글의 딥마인드 자회사는 헬스케어 부문의 AI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애플은 헬스케어 부문을 성장시키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최근 미국에서 온라인 의료 사이트를 오픈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의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BBC, 2021.07.15.; GOV.UK, 2021.07.28.]

사우디아라비아 병원, Cerner와 협력관계를 통해 디지털 전환 추진

■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잘국왕전문병원및연구센터(King Faisal Specialist Hospital & Research Centre, KFSH&RC)'는 글로벌 바이오테크기업 써너(Cerner)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COVID-19 대응을 위해 머신러닝(ML)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

- KFSH&RC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솔루션 업체인 Cerner와의 협력 하에, 병원 운영과 환자 치료를 최적화하기 위해 예측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COVID-19 대응을 위한 디지털 지원 ML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정보 기술을 위한 치료경험 데이터를 축적
-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내외부의 모든 관리와 진료 기능을 병원 통합진료 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단일 플랫폼 상에서 병상이나 의료기의 배치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의료진과 관리 인력들에게 제공
- 이 플랫폼은 개인보호장비, 병상,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 기기의 재고 수준과 직원 부족 정도를 92%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집중치료실이나 폐쇄 병동으로 보내야 하는 장비와 인력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Healthcare IT News, 2021.07.06.; CIO, 2021.06.30.]

일본, 로봇틱스·데이터×통신×IT 융합의 가속화

■ 일본은 숙련된 의사의 편중, 균등한 수준의 의료 제공 같은 의료업계의 과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의료 로봇틱스·데이터, 통신, IT를 활용한 디지털 의료 솔루션(수술지원 로봇, 스마트 수술실, 원격수술 등)이 등장하면서 의사-의사간(D2D)영역에서 의료 디지털전환(DX)이 급속하게 진전

- 일본은 로봇지원 수술의 보험적용 확대, 저가격·컴팩트화를 차별화 요소로 수술지원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베대학은 '21년 봄을 목표로 일본 최초의 수술지원 로봇인 'hinotori'와 모바일5G를 활용한 원격수술 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발표
- 대표적 솔루션인 SCOT(Smart Cyber Operating Theater)는 기술사양이 다른 거의 모든 의료기기(생체정보 모니터, 전기메스, MRI 장비 등)를 미들웨어 'OPeLiNK'로 네트워크화해서 수술자가 다양한 이용기기의 정보를 참조하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 일본은 도쿄여대와 NTT도코모가 대형 트럭에 스마트 수술실인 'SCOT'을 탑재한 '모바일 SCOT'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럭에 탑재한 스마트 치료실을 모바일 5G로 접속해 멀리 떨어진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단·치료한다는 구상을 추진

[情報通信総合研究所, 2021.07.15.; ロボスタ, 2021.07.10.]

디지털 기술과 기기,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회복을 지원

■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고용주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 조직에 전략적 초점을 맞춘 웰빙을 직원과 고용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

- COVID-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직원들의 42%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우울감이나 분노조절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조 달러에 달하는 생산성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
-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으로 △웨어러블 △디지털바이오마커 앱 △자가 지원·관리·명상 솔루션 △일반용 가상치료 솔루션 △전문용 가상치료 솔루션 △분석 및 원격 식별 솔루션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
- 고용주들은 웨어러블 및 디지털 바이오마커앱을 통해 직장에서 겪는 정신건강 문제들의 식별과 해결이 가능하며, 예방 및 치료 솔루션을 통해 직원의 회복력과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해결방안을 마련

[McKinsey & Company, 2021.07.06.; HDI, 2021.06.24.]



4대 보건산업

미국, Abbott사의 시장 진입으로 LACC 시장의 경쟁 심화 전망

■ 애보트(Abbott)사가 개발한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LACC) 기기인 Amulet가 FDA의 승인을 획득할 경우, 그동안 식품의약품(FDA) 승인후 6년동안 미국 LACC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Boston Scientific사의 Watchman 기기는 경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21년안에 Abbott사의 Amulet가 FDA의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사도 '23년 후반기에 LACC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
- Boston Scientific의 Watchman 매출액 규모는 '20년 4억 1,200만 달러에서 '21년 전년대비 78% 상승한 7억 3,4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22년에는 80억 달러 규모의 심장 관련 시장에서 LACC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Abbott의 Amulet는 '13년에 유럽 시장에서 CE 마크를 획득했으며, 출시 3년만에 유럽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Watchman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MDDI online, 2021.07.23.; Forbes, 2021.07.21.]

미국, COVID-19 글로벌 대응과 회복 프레임워크 발표

■ 미국 정부가 발표한 'COVID-19 글로벌 대응 및 회복 프레임워크(COVID-19 Global Response and Recovery Framework)'는 전염병을 종식하고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글로벌 보건 시스템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을 제시

- 이 프레임워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공급과 광범하고 공평한 백신 접근성을 가속화하고 △COVID-19에 의한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전파를 완화함과 동시에 팬데믹의 예방과 식별 및 대응 등 보건 시스템을 강화
- 또한 △COVID-19로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뿐 아니라 회복력을 구축하며 △COVID-19에 의한 침체국면 재돌입을 방지하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 및 필수적인 시스템을 강화
- 마지막으로 △팬데믹 위협을 예방하고 식별하며 대응하기 위한 국제 보건 안전 구조를 강화하는 등 5가지 목표를 제시

[The White House, 2021.07.01.]

유럽 EC, Illumina의 Grail 인수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 EU집행위원회(EC)는 70억에서 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유전자 검사 하드웨어 장비업체인 일루미나(Illumina)사의 유전자 시퀀싱 기술을 이용한 암진단 바이오 스타트업인 그레일(Grail)사 인수에 대하여 3개월 간의 심층 조사에 착수

- Illumina와 Grail 인수 건에 대한 조사는 유전자 시퀀싱 기술에 기초하고 있는 암 진단 기술 분야의 발전과 상업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인수가 신규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1년 3월에 경쟁과 혁신 저하의 이유로 Illumina의 Grail 인수를 불허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지만, FTC는 EC의 결정을 관망한 후 결정하기 위해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
- 한편, Illumina는 Grail의 인수가 경쟁을 촉진할 것이며, 인수 협상 과정에서 진행된 모든 정보를 EC 측에 협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EC측에서 제기한 우려감에 대해 반박 입장을 표명
- 이번 인수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Grail사의 암진단 기기 제품의 유럽 출시가 늦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

[MedTech Dive, 2021.07.23.; USA Today, 2021.07.06.]

유럽 농촌지역,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건 서비스 공급이 중요

■ 현재의 인구 동향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수한 공공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해지고 있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EU의 농촌 지역은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필요

- 유럽 농촌 지역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제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모두 낮은 것과 함께, 전문 인력의 부족과 물리적 거리라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
-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유럽 국가간 비교를 통해 초중등 교육과 심장병과 비만 등에 대한 보건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과 접근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가치 추산이 필요
- 현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욱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비하여 비용효율성과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 접근성이 허용될 수 있도록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필요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2021.07.14.]

일본 화장품업체 Kao, 매출 부진 극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투자

■ COVID-19 팬데믹 기간 중에 매출액 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의 화장품업체 카오(Kao Corp, 花王)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억 3,6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실행하기로 결정

- '20년 순 매출액이 5.2%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17.1% 감소할 정도로 부진을 겪은 Kao Corp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와 고객 경험을 제고하려는 계획을 수립

* Kao Corp는 화장품 매출에서 시세이도(Shiseido)에 이은 일본 2위 화장품 회사

- Kao Corp는 연간 56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머리 염색약 견본 제품의 사용도 중단하기로 결정
- 실제 화장품 샘플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대신, 대만의 첨단 기술업체 퍼펙트(Perfect)사와 협력하여 YourCam Make-up 애플리케이션으로 머리색을 바꾸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등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 '디지털 라이프 플랫폼'을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한 Kao Corp는 소비자들의 피지 RNA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머리 염색 시뮬레이션과 피부 분석 기법 등을 도입

[Cosmetics design asia, 2021.07.14.; Kao, 2021.06.23.]

중국, 외국에서 제조된 COVID-19 백신을 사용하여 추가접종 고려

■ 중국 정부가 자국 백신의 효능을 개선하기 위해 시노박(Sinovac)과 시노팜(Sinopharm) 등 중국산 백신을 100% 접종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추가접종(booster shot)을 할 때 외국백신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중국이 현재 추진하는 백신외교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 중국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보건 당국이 자국 백신 제조 기업인 상하이푸싱제약(Shanghai Fosun Pharma)과 독일 기업 바이오엔텍(BioNTech)이 공동으로 개발한 부스터 백신에 대한 전문가 패널 회의를 마치고 행정적인 검토(administrative review) 단계 중
- 그동안 자국 백신의 효능을 앞세워 개발도상국에게 백신의 기부와 판매를 통해 '백신 외교'를 전개해오던 중국은 자국산의 낮은 백신 효과로 인해 추가접종의 필요성의 제기

* '21년 6월 초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시노백/중국국립제약그룹이 개발한 COVID-19 백신은 브라질 3상 임상시험에서 51% 예방효과와 연구대상의 100% 중증 및 입원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 중국산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최근 중국산 백신의 낮은 효능성 때문에 서구에서 제조한 백신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

[VOA, 2021.07.21.; WHO, 2021.06.02.]

캐나다·영국, COVID-19 백신과 변이 바이러스의 상관관계 연구

■ 최근 캐나다와 영국에서 실시된 임상연구는 COVID-19 백신이 델타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화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시사

- 캐나다 연구진은 '20년 12월~'21년 5월 기존 COVID-19 바이러스 및 변이 바이러스(알파, 베타/감마, 델타)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비교한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
- 중증환자(입원·사망)의 평균연령은 ①기존 바이러스(69.8세) ②베타/감마 바이러스 (62.6세) ③알파 바이러스(60.5세) ④델타 바이러스(55.6세) ⑤비감염자(43.1세)순으로 나타나 델타 바이러스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중증화되는 양상을 확인
-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예방 확률은 화이자(1차 접종 후 14일 이상, 이하 동일)=56%, 모더나=72%, 아스트라제네카=67%였으며 중증화 예방 확률은 화이자=78%, 모더나=96%, 아스트라제네카 88%를 기록
- 또한 영국 스코틀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21년 4월 1일~6월 6일 신규 감염자에 대한 백신의 유효성을 분석한 연구조사를 통해서도 동일한 경향을 확인
- 화이자 백신의 델타바이러스 감염예방 확률은 '1차 접종 후 28일 미만'은 12%, '1차 접종 후 28일 이상'은 30%였으며 '2차 접종 후 13일 미만' 66%, '2차 접종 후 14일 이상'은 79%로 상승해 델타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2회 접종의 유효성을 확인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2021.07.15.; BUSINESS INSIDER, 2021.07.12.]

델타 변이 바이러스, 높은 전염력으로 급속도로 확산

■ 기존 COVID-19 바이러스에 비해 2~3배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미국의 경우 감염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우세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확산

- 중국 광둥지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델타 바이러스 변이는 감염자의 기도 세포 속에서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평균적으로 1,000배 가량 빠르게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복기가 짧은 것으로 확인
- 체내에서 검출가능한 수준으로 증식하는 기간도 기존 바이러스는 평균 6일이 걸리는데 반해, 델타 변이는 4일 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
-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은 매우 높지만, 다른 변이와 비교할 때 병원에 입원하는 수준의 중증으로 발전하는 위험도는 기존 바이러스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NPR, 2021.07.21.; Virological.org, 2021.07.07.]